

녹용의 성능을 잘 알고 써야 보약이 된다

최 전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초청교수

녹용은 사슴과(鹿科) 동물인 꽃사슴(梅花鹿, *Cervus nippon Temminck*)이나 말사슴(馬鹿, *Cervus elaphus L.*) 그리고 사슴과의 기타 동물중 수컷의 골화(骨化)되기 전의 연한 뿔을 베여 건조시킨 것이다. 녹용은 《본경(本經)》(《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의 약칭임)에서 제일 일찍 기록되었다. 《본초도경(本草圖經)》에는 이르기를 《〈본경〉은 녹용이 나는데를 밝히지 않았는데 산림지대에서는 거의 다 나며 4월(음력)에 새로 자라나는 뿔을 베내여 음지에서 말리운 것이다. 여린 가지(小紫茄子) 같이 연한 뿔을 상등으로 친다. 여린 가지 같이 너무 연한 뿔은 혈과 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가달이 생긴 뿔보다 효력이 못하다는 설도 있다.》고 하였다.

녹용은 한의 임상(漢醫臨牀)에서 신장(腎臟)을 튼튼히 하고 정력을 왕성케 하는 명약이다. 사회가 발전되고 경제적으로 유족해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점차 높아져 녹용이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며 성기능을 보강하는 보제(補劑), 건강제로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약이면 독성이 있기 마련》이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녹용을 어떤 경우에 복용하면 좋고 어떤 경우에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녹용을 함

부로 보약으로 쓰고 녹용을 과도하게 복용하거나 되는대로 복용한다. 결과 기대와는 달리 이런 저런 좋지 못한 반응들이 나타나 건강을 크게 해치는 일이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녹용을 복용하는데 대해 옳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녹용에 들어있는 주요한 화학성분, 녹용의 성능, 녹용을 쓰기 알맞는 증상, 녹용을 쓰면 불리한 증상, 녹용의 부작용 등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1. 녹용에 들어있는 주요한 화학성분

녹용에는 아미노산(氨基酸), 포스포리피드(磷脂), 지방산(脂肪酸), 당지(糖脂), 당(糖), 스테롤(固醇類), 호르몬양물질(激素樣物質), 전위선소(前列腺素), 뇌소(腦素), 리보핵산(核糖核酸), 탈산리보핵산(去氧核糖核酸), 아데노신삼린산(三磷酸腺苷), 효소(酶類),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물(無機物) 등이 들어있다.

아미노산은 녹용 약효성분의 한가지이다. 녹용에는 인체내에서 합성될수 없는 필수아미노산 즉 리진(賴氨酸), 트리프토판(色氨酸), 페닐알라닌(苯丙氨酸) 등 19가지 이상의 아미노산이 들어있다. 녹용에는 주로 용혈포스파티딜콜린

(溶血磷脂酰膽城), 스판고미엘린(神經鞘磷脂), 포스파티딜콜린(磷脂酰膽城), 용혈포스파티딜에타놀아민(溶血磷脂酰乙醇胺), 포스파티딜이노시톨(磷脂酰肌醇) 등 10가지 포스파티드류가 들어있으며 두구산(豆蔻酸), 팔미틴산(棕櫚酸), 리놀산(亞油酸), 리놀렌산(亞麻酸), 아라킨산(花生油酸), 아라킨디엔산(花生二烯酸), 아라기논산(花生四烯酸) 등도 포함되어있다. 이외에 녹용은 무기물이 30%이상을 차지하며 26가지의 미량원소가 들어있다. 이와 같은 성분들은 녹용이 특이한 효력을 낼수 있는 물적바탕으로 된다.

2. 녹용의 효능

1) 고대문헌기록

고대 문헌들에서 우리는 녹용의 효능에 대한 론술들을 적지 않게 찾아 볼수 있다. 예를 들면 《본초강목》에는 녹용은 《정기를 생성하고 골수를 보하며 혈과 양기(陽氣)를 돋고 근육을 발달케 하며 뼈를 튼튼히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일화자본초(日華子本草)》에는 녹용은 《허약해진 체력을 돋고 근골(筋骨)을 튼튼히 하고 어혈을 풀어주고 나쁜 바람을 몰아내고 기를 잘 통하게 하며 안태시킨다.》고 쓰여 있다. 《품회정요(品匯精要)》에는 또 녹용은 《양기를 돋는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녹용은 주요하게 신장(腎臟)을 보하고 정력을 왕성하게 하며 근골을 튼튼히 하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며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등 기능을 한다.

2) 현대의 연구에 대한 귀납

녹용의 기능과 용법에 대한 현대의 많은 임상연구와 실험연구를 귀납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1)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여준다.

녹용은 다방면으로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여준

다. 녹용은 세포의 면역기능을 높여줄뿐만 아니라 체액(體液) 면역계통의 기능도 높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녹용은 작은 쥐(小鼠)의 단핵거식세포(單核巨噬細胞)의 식균(吞噬)기능을 뚜렷이 높이고 탄소립제거률(碳粒廓清率)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시클로포스파네드(環磷酰胺)와 히드로코르티손(氫化可的松)에 의해 저하된 작은 쥐(小鼠)의 식균기능을 현저하게 활성시킬수 있다. 녹용의 알콜추출물은 또 작은 쥐의 용혈소(溶血素) 항체 생성을 촉진하여 혈청 용집효가(血清凝集效价)를 높이고 항체를 늘여 세포(PFC)를 형성하게 한다.[1]

(2) 노쇠를 방지한다.

영장류와 설치류 동물의 뇌와 간조직 모노페놀옥시다제(MAO)의 활성을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높아지며 특히 MAO-B의 활성은 더욱 뚜렷하게 높아진다. 녹용은 MAO-B의 활성을 억제시키며 또한 약물의 농도를 높임에 따라 그 작용도 점차 커진다. 이것은 녹용이 세포의 노쇠를 지연시켜 장수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2]

(3) 강장(強壯)작용을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녹용은 체력을 보강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수면을 돋고 식욕을 돋구며 인체의 조혈기능을 높여주어 적혈구(紅細胞), 망상적혈구(網織紅細胞), 혜모글로빈(血紅蛋白), 빌란루빈량(膽紅素量), 백혈구(白細胞)가 늘어나게 하며 비장을 튼튼히 하고 비장의 기능을 개선시키며 간장(肝臟), 비장(脾臟), 장(腸)의 미세순환(微循環)을 개선시킨다. 따라서 인체의 신진대사기능을 높이고 뇌, 간장, 신장(腎臟) 등 중요한 장기(臟器)의 산소소비량(耗氧量)을 늘리며 나아가서는 체질을 증강시킨다.[3]

(4) 성기능을 증진시킨다.

녹용의 중요한 작용의 하나는 성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녹용을 위주로 한 약제는 음위(陽萎), 정자부족으로 인한 남성불임증 등 병리변화(病變)를 치료할 수 있다. 정자부족으로 인한 남성불임증 환자 22명을 치료해본 결과 90%의 환자가 효과를 보았다[4]는 기사가 있다. 왕씨(王氏)가 녹용, 인삼사포닌(人參皂甙)을 위주로 한 약제로 음위환자 186명을 치료해본 결과 87.63%의 환자가 효과를 보았으며 그 약제가 부신피질분비기능저하(腎上腺皮質分泌功能低下)로 인한 음위를 일정하게 치료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5]고 한다. 실험과 연구를 통하여 녹용이 용성유서(雄性幼鼠)의 전위선(前列腺)과 정낭(精囊)의 무게를 현저히 증가시키고[6] 수탉 계관(鷄冠)의 무게를 뚜렷이 증가시킨다[7]는 것도 실증되었다.

(5) 과산화에 의한 지방질의 손상을 방지한다.

과산화에 의해 손상된 지방질은 주로 세포막의 다불포화지방산(多不飽化脂肪酸)을 해치며 따라서 세포가 빨리 노화되고 죽어 인체가 속히 노쇠해지게 한다. 녹용은 과산화된 지방질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초산화물인 불균등화효소(SOD)의 활력을 높여주어 과산화에 의한 인체지방질의 손상을 경감시킨다.

(6) 신경계통의 기능을 조절한다.

녹용은 신경계통에 대하여 양호한 조절작용을 한다. 즉 인체의 신경계통이 지나친 흥분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신경계통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인체의 신경계통이 지나치게 억제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또 신경계통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한다. 10%의 녹용알콜추출물(鹿茸醇提物)은 쥐의 대뇌와 전간병(癲癇病)을 발작시키는 관계부위의 흥분을 억제시키고 청원성 경풍(聽源性驚厥)의 발작기를 지연시킬 수 있을 뿐더러 발작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다[8]고 한다. 녹용은 또 녹용속에 들어있는 런기질(磷脂)을 이용하여 뇌조직의 RNA와 단백질함유량을 증가시키고 뇌조직의 단백질 합성(合成)을 촉진하여 정기를 보강할 수 있다.[9]

(7) 심근(心肌)의 혈액공급기능을 증진시킨다.

인체의 이체심장(離體心臟)과 전신에 대한 실험은 녹용알콜추출물(鹿茸醇提物)이 심근의 수축력을 증진시켜 심장박동빈도를 높이고 심장수출량(心輸出量)을 늘일 수 있으며 피로해진 심장일 경우 그 작용이 더 뚜렷하다[10]는 것을 실증하였다.

3. 녹용을 쓰는 것이 적합한 증상

녹용은 달면서 짠맛이 나고 몸을 텁혀주며 신장, 간장 경맥에 작용하며 임상에서 흔히 간장, 신장의 병리변화를 치료하는데 쓰인다. 특히 신장의 양기가 부족(虧虛)하거나 명문(命門)에 열이 성하여 몸이 쇠약한 등 증상에 쓰인다.

(1) 신장양기가 부족하고 기혈이 허한 경우에 쓴다. 신장양기가 부족하거나 기혈이 부족하면 추위를 타고 사지가 차며 음위(陽萎), 조루(早泄) 현상이 나타나고 자궁이 냉하여 임신이 되지 않고 소변이 잦고 밤에 자주 일어나 소변을 보며 대변이 묽고 5경(새벽 4시)에 설사나고 허리와 무릎이 시큰시큰하며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흥얼 소리가 나며 정신이 나지 않고 설태가 회박하며 맥이 가늘고 약한 등 증세가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녹용만을 가루내여 복용하거나 녹용에다 인삼, 숙지(熟地), 음양곽(淫羊霍), 선모(仙茅), 삼지구엽초(仙靈脾) 등을 같이 쓸 수 있다.

(2) 혈기부족증에 쓴다. 혈기가 부족하면 근골(筋骨)이 힘이 없고 어린아이는 발육이 잘되지 않으며 뼈가 무르고 동작이 굽뜨며 솟구멍(囟門)이 제대로 닫기지 않고 식욕이 떨어지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녹용에 숙지, 참마약(淮山藥), 산수유열매(山萸肉) 등 약재를 배합해 쓸 수 있다.

(3) 몸이 허약하여 머리가 아찔아찔하고 눈앞이 침침해나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얼굴이 파리하고 맥이 없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건망증이 있고 꿈이 많은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쓴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이르기를 녹용은 『귀가 잘 들리지 아니하고 눈앞이 침침해 나거나 현훈증이 일어나고 설사가 나는 등 여러 가지 허증(虛症)을 고칠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에는 원기를 돋도록 녹용에 인삼을 같이 쓸수 있다.

(4) 녀성이 냉으로 충맥(冲脈), 임맥(任脈)이 허하거나 대맥(帶脈)이 약한 경우 즉 자궁출혈이 멎지 않고 혈의 색이 연하며 몸에 냉기가 있고 사지가 차며 허리와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맥없으며 백대하가 많은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 쓴다. 《약성론(藥性論)》에 이르기를 록용은 『녀자의 자궁출혈에 쓰며』 『적백대하증에도 쓴다.』고 하였다. 상기한 병리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녹용에 당귀(當歸), 오직골(烏賊骨) 등을 배합하여 써도 좋다.

(5) 부스럼이 오래도록 아물지 않거나 종기의 독이 점점 속으로 번져가는 등 증상에 쓴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녹용에 황기(黃芪) 등을 배합하여 기혈을 보한다. 록용이 병을 예방하고 몸을 튼튼히 하며 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이는 보제(補劑), 건강제로 복용할수 있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만큼 자기의 체질에 맞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녹용은 한기를 몰아내고 몸을 덥혀주는 성질을 갖고있으며 주로 신장을 튼튼히 해주고 정력을 왕성하게 해주므로 남자들이 마흔에 이르러 《신기(腎氣)가 쇠약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치아가 부실해지고》 허리와 무릎이 시큰시큰해나고 자주 맥이 없으며 소변을 오래 보고(통쾌하게 나오지 아니함을 말함) 또는 자주 보며 음식이 적게 당기고 대변이 무르며 사지가 찬 등 기부족증이 있는 경우에 복용할수 있다. 이럴 때에는 녹용을 술에 담그어 마시거나 록용을 가루내여 물에 타서 마셔도 되고 록용을 다른 약제(藥劑)와 배합해 복용할수도 있다.

4. 녹용의 부작용과 녹용을 쓰지 말아야 할 병증

1) 녹용의 부작용

녹용은 병을 고칠수 있고 몸을 튼튼히 할수도 있지만 정상에 맞게 옳이 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다. 《녹용통고(鹿茸通考)》에는 『녹용은 정기를 보하고 골수를 보태주는 특이한 기능을 하지만 부당하게 복용하게 되면 피를 토하거나 각혈을 하고 피오줌을 누고 눈에 피가 지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중풍이 오고 까무러치는 등 증세가 나타난다.』고 기재되어있다.

임상에서 녹용을 잘못 써서 부작용이 나타난 데 대한 보도가 적지 않다. 예컨대 장씨(張氏)의 기사에 의하면 한 환자는 녹용을 복용한 후 두 눈이 벌겋게 충혈(결막이 충혈됨)되고 혀와 입안이 마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11] 그 외 한 노독증(尿毒症)환자는 혈편(血竈)을 복용한 후 코피가 흘렀다고 한다.[12] 녹용을 복용한 후 피부과민이 생겨 온몸이 가려워 나고 여기저기에 두드러기가 돋은 사실도 있으며[13] 녹용알콜추출물(鹿茸醇提物)을 근육에 주사한 후

온몸에 통통(疼痛)이 온데 대한 임상 경험 소개도 있다.[14] 그리고 어머니가 임신기간에 녹용을 복용한 것이 그 아이가 출생하여 3살 때 성조숙현상이 나타난 일까지 있다.[15]

이상의 사실들은 녹용이 결코 만병통치의 신약(神藥)이 아니며 녹용에 들어있는 많은 물질들은 인체에 필요한 요소들이 부족될 경우 그런 요소들을 보충해줄수도 있고 이런저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항원(抗原)으로 될 수도 있으므로 녹용을 복용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2) 녹용을 쓰지 말아야 할 병증

병을 보아 약을 써야 하며 녹용과 같은 보제(補劑)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고대의 현인들은 벌써 알고있었다. 그 실례를 들면 《본초경소(本草經疎)》에 『녹용은 주요하게 양기를 보하므로 신장(腎)이 허하고 속열이 있는 사람은 녹용을 쓰지 말아야 하며 상초(上焦)에 담열(痰熱)이 있고 위장에 열(火)이 있는 사람은 녹용을 쓰지 말아야 한다. 한것은 녹용이 몸을 덥게 해주는것이여서 갚힌것을 잘 삭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피를 토하거나 하혈을 하며 음기가 약하고 열이 센 사람은 일률로 녹용을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고 《본초문답(本草問答)》에도 『녹용은 기혈을 돋우는 성질을 갖고있으므로 피를 토하거나 속열이 성하는 사람은 쓰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증세가 있는 사람은 녹용을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1) 음기가 허하고 양기가 성하는 병증. 이런 증세는 대체로 방사(房事)가 과도하거나 오랜 병으로 신장기능이 감퇴되었거나 기를 살리는 보제(補劑)를 과도하게 복용한데 기인한다.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흥얼 소리가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꿈이 많으며 남자는 양기가 성

하여 쉽게 발기되고 유정(遺精)이 생기며 여자는 월경이 적거나 오지 않으며 자궁에서 출혈하고 몸이 수척해지고 초열(焦熱)이 있고 오심(五心)에서 번열이 나고 목이 마르고 얼굴에 울기 오르고 소변이 누르고 대변이 굳으며 혀가 벌겋고 타액이 적으며 맥이 약하고 잦은 등 증상이 이에 속한다.

(2) 혈열증(血熱證)이 있는 사람. 즉 번열이나고 광기가 일며 잘 때 헛소리를 하고 벌건 또는 거먼 반진(斑疹)이 돋고 각혈을 하거나 코피가 흐르고 혈변(血便)을 보거나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오고 혀가 어두운 자색이 나고 맥이 가늘고 잦은 등 혈분실열증(血分實熱證)이 있는 사람, 또는 숨은 열이 계속 나거나 저녁이면 열이 나고 아침이 되면 몸이 싸늘하게 차지거나 오심에서 번열이 나며 열이 내릴 때 땀이 없고 입안과 목이 마르고 몸이 피곤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몸이 수척해지고 혀바닥이 마르며 맥이 허하거나 가는 등 혈분허열증(血分虛熱證)이 있는 사람.

(3) 위열증(胃熱證). 즉 위안(胃脘)이 지지는 것처럼 아프거나 입안에서 신물이 돌고 속이 굴는 것 같거나 먹으면 토하고 찬것을 마시기 좋아하고 음식을 싫어하며 속이 비면 낫거나 잇몸이 부으면서 아프고 짊아나며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입냄새가 나며 대변이 굳고 소변이 불그레하고 량이 적으며 혀가 빨갛고 설태가 누르며 맥이 미끄럽고 잦은 등 위열이 심한 사람, 또는 위가 은은하게 아프고 배가 고파도 식욕이 없으며 입안과 목이 마르고 대변이 심히 굳거나 위강비대증이 있거나 혀구역질이 나고 트림이 나며 혀가 빨갛고 침이 적으며 맥이 가늘고 잦은 등 위음기부족증(胃陰不足證)이 있는 사람.

(4) 담열옹폐증(痰熱壅肺證). 즉 숨이 차고 목

에서 가래가 끓고 가슴이 답답하고 누런 가래가 성하여 입안이 마르고 변비증이 있는 사람.

(5) 간열상염증(肝火上炎證). 즉 머리가 어지럽고 턱질것처럼 아프며 얼굴에 울기 오르고 눈이 충혈되며 입안이 쓰고 마르며 속이 불안하고 찍하면 화를 내며 옆구리가 쏘며 아프고 대변이 굳고 소변이 누르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혀가 뺨겋고 누런 설태가 끼며 맥이 당기고 잦은 사람.

그 외에 속열이 심하여 염증으로 번지고 감기로 열이 오르는 등 열증이 있는 사람도 녹용을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5. 맷 는 말

물이 배를 띄울수 있는가 하면 뒤집을수도 있는것과 같이 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녹용을 병을 고치기 위해 복용해도 좋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복용해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처음에는 소량으로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이며 사람에 따라 때에 알맞게 써야 신장을 튼튼히 하고 정력을 보강할수 있으며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건강을 지키며 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지 않고 녹용을 함부로 복용하거나 보신한다더라고 마구 쓰다가는 양기만 심히 성하여 결국은 음기를 해치고 정기를 잃을수 있다.

참고 문헌

- 孫曉波 등이 지음. 《中成藥研究》 1986, 9 : 24
- 陳曉光 등이 지음. 《中藥藥理與臨床》 1990, 6(1) : 30
- 連玉樹 지음. 《中醫藥學報》 1988, (6) : 41
- 李華春 등이 지음. 《實用中醫內科雜志》 1994, 8(3) : 35
- 王至中 등이 지음. 《中國醫藥學報》 1991, 6(2) : 12
- 飯田高史 등이 지음. 《醫學中央雜志》 1966, 219(4) : 497
- 潘麟士 지음. 《福建醫藥雜志》 1980, 2 : 64
- Dobrokhotova LP.CA 지음. 1967, 66 : 1486d
- 徐惠波 등이 지음. 《中藥藥理與臨床》 1992, 8(1) : 29
- 峰下鐵雄 등이 지음. 《日本藥物學雜志》 1937, 23(3) : 157
- 張會珍 지음. 《中醫藥信息》 1994, 4 : 46
- 謝宗昌. 지음. 《中醫雜志》 1994, 35(1) : 696
- 陳學勤 지음. 《福建中醫藥》 1990, 21(3) : 59
- 賀誌炎 지음. 《中成藥研究》 1987, 4 : 45
- 余南平 지음. 《重慶醫藥》 1997, 26(2)